

##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생산성 요인 분석

### The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Productivity Factors of Construction Foreign Laborers

양기남\*      신대웅\*      김광희\*\*  
Yang, Gi Nam      Shin, Dae-Woong      Kim, Gwang-Hee

#### Abstract

As manpower shortage of national construction site is continuing, a manpower of foreign laborers are steadily increas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mpacts the purpose for productivity of laborers as labor-intensive industry against different indus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analysis of foreign laborer's productivity. This study analyzes to use foreign labor's psychological productivity factors as a basic standard by comparing to Korean's. Construction foreign laborers seem to put bigger priority on "accomplishment of task," and "job satisfaction," than Korean workers, according to the response results in Likert 5-point Scale Measurement with 11 kinds of psychological causes in theories regarding productivity factors. Thus, this study expects to use as baseline data for productivi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foreign laborers.

키워드 : 외국인 건설 근로자, 심리적 요인, 생산성

Keywords : Construction Foreign Laborers, Psychological Factors, Productivit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국내 건설현장의 인력난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6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전체 791천명 중 건설 외국인 근로자가 85천명으로 전체의 10.75%를 점유하고 있어 타 산업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또한 건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관리가 산업의 목표에 큰 영향을 끼친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생산성 요인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생산성요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건설 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 근로자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및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 지역 건축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 2.1 기존연구 고찰

진외재 외 2인(2005)<sup>3)</sup>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로 정책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규만 외 1인(2006)<sup>4)</sup> 연구에서는 한국 근로자와 중국 근로자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직무태도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규범(2002)<sup>5)</sup>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 활용 실태와 정책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외국인의 심리적 생산성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생산성 요인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생산성 요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교신저자(ghkim@kyonggi.ac.kr)

## 2.2 심리적 생산성 요인 선정

Maslow의 욕구이론, Alderfer의 ERG이론,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Murray의 욕구 압력이론의 생산성 관련 요인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건설 현장 경력자 30명에게 설문을 통하여 8명이상이 중요하다고 한 심리적 생산성 요인 11가지를 선정하였다.

## 3. 외국인 근로자 심리적 생산성 요인 분석

### 3.1 설문 개요

본 연구 설문조사는 2012년 1월 10일~2012년 11월 15일 까지 약 10개월 간 서울 경기지역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총14개건설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294명 과 외국인 근로자 256명 대상으로 설문하여 유효설문 부수 한국인 근로자 261부와 외국인 근로자 232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PSS 2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의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크론알파계수 0.686의 값이 나타났다. 보통 0.6이상의 값이 유효한 설문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본 설문은 유효한 설문이라 할 수 있다.<sup>6)</sup>

### 3.2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심리적 생산성 요인 중요도 비교 분석

표1과 같이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을 한 후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요인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안전한 작업환경’, ‘근무의 조건’,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등의 요인이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로 인한 성취감’, ‘직무의 만족감’ 요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근로자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도 순위

순위	한국인		외국인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1	안전한 작업환경	3.69	안전한 작업환경	3.65
2	근무의조건	3.58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3.36
3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3.45	근무의 조건	3.31
4	동료와의 인간관계	3.45	업무로 인한 성취감	3.201
5	업무에 대한 책임감	3.41	직무의 만족감	3.20
6	직장에 대한 소속감	3.37	동료와의 인간관계	3.189
7	업무로 인한 성취감	3.31	업무에 대한 책임감	3.181
8	직무의 만족감	3.30	직장에 대한 소속감	3.15
9	성장가능성	3.15	직무에 대한 도전성	3.03
10	직무에 대한 도전성	2.99	승진기회의 균등	2.97
11	승진기회의 균등	2.86	성장가능성	2.94

## 4. 결 론

본 연구 결과 ‘안전한 작업환경’, ‘근무의 조건’,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항목이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로 인한 성취감’, ‘직무의 만족감’ 항목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나타난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관리방안 적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0-0021520)

## 참 고 문 헌

1. 통계청,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2012
2. 김광희 외 3명, 건축공사 작업자의 생산성 관련 요인 선정 및 요인별 중요도 관련연구, 대한 건축학회, 제28권 제9호, pp.183~90, 2012
3. 진의재 외 3명,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 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pp.4899~905, 2005
4. 이규만 외 1명, 한·중 근로자의 가치관 직무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19권 제4호, pp.1281~306, 2006
5. 심규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실태 및 개선 방향, 한국 건설산업 연구원, 2002
6. 이학식 외1명, Basic SPSS Manual, 집현재, pp.1~376, 2012